

또 전통시장 화재…목포 13개 점포 불타

신중앙시장 인근 멱자골목…인명피해 없이 1시간만에 진화
설 앞두고 불안감 확산…상인들 동절기 화재 실질대책 요구

설을 한달여 앞두고 목포의 한 대형 전통시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와 자치체의 지원 강화로 일부 시장이 화재에 잘 견디는 재질로 리모델링되는 등 화재 안전 정책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겨울철에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오전 6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 신중앙시장 인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상가가 문을 열기 전 발생한 화재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웃가게, 정육점, 야채가게, 식당 등 상가 13칸이 불에 타 불편을 겪었고 상인들도 설 대목을 앞두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불이 난 상가는 목포중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멱자골목'으로 40여 점포가 운영중이며, 이 멱자골목은 100여개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앙시장과는 폭 2~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자칫 불이 한 범종에 났거나 조금이라도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면 대목을 앞두고 멱자골목은 물론, 목포시민들이 찾는 중앙시장이 통째로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인접한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날 화재를 두고 깜짝 놀라는 이유다.

김승희 목포중앙시장 상인회장은 "한밤 중에 불이 났다면 중앙시장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 천만 다행"이라며 "현대화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예방과 점검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게 한 번 불나면 끌 장이라 상인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고평소보다 많은 물건을 비축해뒀던 뒷에 화재 직후 잠정집계한 피해 금액만 70억원을 넘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전기누전으로 조사됐다. 낡은 시설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인접한 빙집에서 불이나 대형 화재로 번질뻔 했으나, 연기를 발견한 상인들이 합심해 소화기로 화재를 막기도 했다.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나면서 상인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가슴을 쓸어내렸다.

목포 시장 상인들의 걱정은 빙말이 아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겨울이면 대형화재가 심심찮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설 대목을 앞두고 여수의 한 전통시장에서도 대형화재가 났다. 지난 2017년 1월 15일 새벽 여수 교동 여수수산시장에서 일어난 불은 당시 시장 전체상가를 수 있는 110개 점포를 태워버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이 난 상가는 목포중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멱자골목'으로 40여 점포가 운영중이며, 이 멱자골목은 100여개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중앙시장과는 폭 2~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자칫 불이 한 범종에 났거나 조금이라도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면 대목을 앞두고 멱자골목은 물론, 목포시민들이 찾는 중앙시장이 통째로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인접한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날 화재를 두고 깜짝 놀라는 이유다.

김승희 목포중앙시장 상인회장은 "한밤 중에 불이 났다면 중앙시장 전체가 날아갈 뻔했다. 천만 다행"이라며 "현대화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예방과 점검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게 한 번 불나면 끌

장이라 상인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7일 오전 목포시 산정동 신중앙시장 인근 멱자골목에서 불이 나 119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목포소방서 제공>

"광주시교육청 초중고 기간제교사 부정채용 엄정대처해야"

'학별없는 광주시민모임' 시교육청 감사결과 진상규명 촉구

'학교법인 이사장이자 담임목사가 선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기간제교사 추천서를 써주고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평가까지…'

광주 시민단체가 초중고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기간제교사 채용 부적절 사례' <광주일보 2018년 12월 19일자 6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별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불투명성에 관한 사항"이라며 "채용계획·초중고 기간제교사 채용부정 사례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구체적 조사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2013~2018년 초중고 감사결과 중 약 40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시교육청은 '감사상 주의'에 그쳤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1000페이지 이상의) 감사결과를 분석해보면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불투명성에 관한 사항"이라며 "채용계획

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고 교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공사립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사립학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단순 절차상 불성실로만 보기 힘든 사항이 많았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실시해 명명백히 전후관계를 밝혀야 한다. 일선학교에서 드러난 다수 부적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산 자동차 중에서는 르노, 수입자동차는 랠서스의 서비스센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서비스센터 이용자 1268명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상위 11개(국산 5개·수입 6개) 업체의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국산 자동차 가운데는 르노삼성성이 종합만족도 3.72점으로 1위였다. 이어 쌍용자동차(3.6점), 현대자동차(3.59), 한국GM(3.56), 기아자동차(3.54) 순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

자동차 서비스센터 만족도

국내 3.77·외국업체 3.72점

오늘의 날씨

해뜰 07:41 달뜰 09:06
해짐 17:37 달짐 19:34

미세먼지 '나쁨'

밤부터 사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눈발 날리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1/5	보성	구름 많음	-3/5
목포	구름 많음	0/4	순천	구름 많음	0/6
여수	구름 많음	1/6	영광	구름 많음	-3/3
나주	구름 많음	-3/5	진도	구름 많음	0/5
완도	구름 많음	0/6	전주	구름 많음	-2/4
구례	구름 많음	-2/5	군산	구름 많음	-2/3
강진	구름 많음	-2/6	남원	구름 많음	-4/4
해남	구름 많음	-3/5	흑산도	구름 많음	4/6
장성	구름 많음	-3/4			

서울 ☀ 충전 ☀ 강릉 ☀

인천 ☀ 청주 ☀ 독도 ☀

대전 ☀ 대구 ☀ 부산 ☀

전주 ☀ 제주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북서~북	0.5~1.5	북서~북	0.5~2.0
남부	만바다	1.0~2.0	북서~북	1.0~3.0
남해	일바다	0.5~1.0	북서~북	0.5~1.0
서부	먼바다(동)	0.5~1.5	북서~북	1.0~2.0
	먼바다(서)	1.0~2.0	북서~북	1.5~2.5

◇ 생활지수

뇌졸증 높음

김기 높음

미세먼지 나쁨

물때

	간조		만조	
	08:35	03:10	21:15	15:57
목포	04:03	10:42		
여수	16:45	22:36		

주간 날씨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	●	●	●	●	●	●

-2/5 -2/6 -2/7 0/6 -1/7 -1/5 -2/5

광주과기원 용량 3배 새 배터리 개발

GIST(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엄광섭 교수팀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이 최대 3배 가량 향상된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했다.

7일 지스트에 따르면 엄 교수팀은 건국대 조학현 교수·미 조지아공대 등 공동 연구팀을 구성,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만일 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하루에 1회 충전 시 7년 동안 큰 성능 감소 없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상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재료로써 그라파이트(음극)와 리튬금속산

화물(양극)이 사용되고 있다. 두 재료 모두 에너지 저작 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기술로는 전기자동차의 전기 저작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연구팀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새로운 전극 재료로써 황-금속(몰리브데늄) 화합물에 주목하고 이를 이용해 현재의 리

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보다 무게 당 용량이 최대 6배 향상되고(에너지밀도 3배) 충·방전 2500회 동안 초기 성능의 9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실시간 전기화학적 처리를 개발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초·중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준비된 강좌는 모두 11개로 문화체험 활동 위주다. 항공드론·보드게임·도예교실·마술교실·스피치·댄스교실 등이 운영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태양광 발전수익	년 3,000만원~3,500만원
임대수익	년 250만원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 담 전국대표 154